

문화 일반

1600년 전 가야인이 만든 집 모양 토기 함안서 출토

조선일보 | 허윤희 기자

입력 2019.05.29 03:01



/문화재청

책을 얹어놓은 모양의 맞배지붕, 9개의 기둥 위에 올린 건물, 대들보와 서까래, 지붕 마감재까지....

1600년 전 아라가야 사람들이 만든 집 모양 토기 <사진> 가 경남 함안에서 완벽한 형태로 출토됐다. 두류문화연구원(원장 최헌섭)은 "함안 말이산 고분군 북쪽에 있는 45호분을 발굴 조사한 결과, 기원후 400년쯤에 만든 집·배·등잔 모양 토기와 동물 모양 별잔 토기, 말갑옷, 투구 등이 발견됐다"고 28일 밝혔다.

집 모양 토기(높이 19cm)는 맞배지붕을 올린 고상(高床·마루를 높게 올린 형태) 가옥을 본떠 만들었고, 대들보·도리·서까래 등 우리 전통 건축의 주요 부재들이 정확히 표현됐다. 용도는 술주전자로 추정된다. 연구원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출토된 집 모양 토기 20여 점 중 출토지가 명확한 것은 6점뿐"이라며 "아라가야 고상건물의 구조와 형태 복원에 중요한 자료"라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